

아특별법·한전공대법 국회 통과 무산... 임시국회서 처리되나

법안 처리 안되면 아시아문화전당, 국가기관 지위 상실

한전공대도 학생 선발 불가능해 '반쪽 개교' 불가피

8일 폐회하는 이번 임시국회내 광주·전남지역 현안 관련 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별법)'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한전공대법)' 등 지역 현안 법안의 이번 임시국회 통과가 사실상 물건너 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생활물류법 등 주요 민생 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이견이 있는 법안에 대

해서는 2월 임시국회로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광주 서구을)은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하고 8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면서 “이견이 있는 법안에 대해 강행처리는 어렵게 됐다”고 국회 분위기를 전했다. 아특별법은 국회 문광위에서 민주당 의원들만이 상임위를 통과시켰지만, 국민의힘이 특정

지역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고 반대하면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아특별법 개정안은 아시아문화전당과 위탁운영 주체인 아시아문화원을 일원화하는 내용 등으로, 법안으로 돼 있는 아시아문화원을 해체해 국가기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통합한 뒤 문체부 직속기관으로 하고 현재 문화원의 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 처리가 안 되면 문화전당은 국가기관의 지위를 상실하고 법안이 운영하는 기관으로 전락하는데, 법이 통과될 때까지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은 혼돈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한전공대법) 역시 국

민회의의 반대로 상임위에 머무르고 있다. 한전공대법안은 공공기관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운영근거와 2022년까지 순조롭게 개교가 이루어지기 위한 특례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22년 3월 개교 목표인 한전공대는 학생 선발이 선행돼야 하는데 최소 오는 3월까지 이 법안이 통과돼야 학생 선발이 가능해진다. 3월 이후 특별법이 통과되면 교사 준공식은 가능하지만, 수업을 받을 학생은 없어 '반쪽 개교'가 불가피해진다. 이밖에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군공항 특별법)'과 '여수·순천 10·19사건 진

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수특별법)' 등도 진척이 없다. 민주당 신정훈의원(나주·화순의원)은 “법안의 쟁점도 쟁점이지만, 연말연시 여야간 경색 국면이 지속되면서 법안 심사 등이 지연됐다”면서 “2월 임시국회가 있는 만큼 한전공대법 등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 현안 법안 중 5·18 역사 왜곡 처벌법,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등 3개 법안은 지난해말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미희기자

영암군, 1인당 10만원 재난생활비 또 지급

영암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지난해 7월에 이어 1인당 재난생활비 10만원을 또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재난생활비에는 군비 55억원이 투입되

며,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두차례 지급은 전남지역 기초단체 중 처음이다. 군은 설 명절 이전 완료한다는 목표로 오는 18일부터 2월19일까지 재난생활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은 올 1월8일 이전부터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과 외국인(영주권자, 결혼이민자)이며, 신청 시까지 출생한 신생아들도 재난생활비를 지급 받는다. 재난생활비는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수령할 수 있다. 영암=조대호기자



눈속 등교 광주와 전남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7일 오전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교정에서 학생들이 우산을 쓰고 등교하고 있다. (관련기사 9면)

광주, 아파트 청약경쟁률 양극화 심화

지난해 총 5108가구 청약접수
최고·최저 경쟁률 차이 150배
'힐스테이트 첨단' 무려 229대 1

총 공급된 5108가구 중 특별공급 물량(1474가구)을 제외한 3634가구의 일반 공급 1순위 청약접수에 총 11만4909명이 참여해 평균 31.6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아파트는 '힐스테이트 첨단'으로 213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4만8720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228.73대 1을 찍었다. 이어 'e편한세상 무등산'은 65세대(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6935명이 청약해 평균 경쟁률 106.69대 1, '힐스테이트 광산'이 52.43대 1(244가구 모집·1만2793명 접수)로 뒤를 이었다. 청약경쟁률 상위권 아파트는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등 브랜드 경쟁력을 앞세운 단지였다. 해당 단지에는 입지 여건과 시세차의 실현 기대감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도 광주 분양권 전매 제한 전 마지막 아파트이자 재개발 단지인 '금남로 중흥S-클래스&두산위브더제니스'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피하려는 수요가 몰려 12.24대 1(1276세대 모집·1만5621명 접수)이라는 비교적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김민정기자

지난해 광주 지역 아파트 청약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브랜드와 입지 환경에 따라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경쟁률은 낮아졌지만 최고·최저 경쟁률 차이가 150배를 훌쩍 넘어섰기 때문이다. 7일 광주·전남 대표 부동산 포털 사랑방부동산(home.sarangbang.com)의 '2020년 광주 아파트 청약시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31.62대 1로, 전년(41.07대 1) 대비 크게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실물경제 위축과 분양권 전매제한·대출제한 등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러한 약세 속에서도 입지·브랜드 파워 등을 갖춘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는 높게 나타났다. 인기 단지 청약접수에는 수만명이 몰렸지만, 비인기 단지의 경우 경쟁률이 '1대 1'을 겨우 넘기는 경우도 속출했다. 사랑방부동산이 청약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2월 광주에서는 모두 10개 단지 아파트가 청약접수를 했다.

토요일은 쉽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악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를 두어 주세요!